예수님 재림

2025년 9월 23/24일

조슈아 음라켈라

예수님재림 2025 년 9 월 23/24 일

초안 번역본만 제공

2025 년 7 월 6 일 Truth Limited 에서 영어로 최초 출판

이 출판물의 무료 버전은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론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보편적이어서, 저작권 문제 없이 어떤 언어나 방언으로든 자유롭게 번역되어 세계 어디에나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레고리력으로 9 월 23 일이나 24 일에 기독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이 두 날짜는 이스라엘의 나팔절과 5786 년 유대교의 새해(로쉬 하샤나)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교회 용어로,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회의 휴거이며, 예수님과 그의 처녀 "신부"로서의 교회 사이의 영적 결혼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모든 시간대를 가로질러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겨진 옷자락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7 년 환난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2032 년 9 월 15 일 유대인의 속죄일(욤 키푸르)에 공개적으로 재림하시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하네스버그의 조슈아 믈라켈라가 전직 기독교 신문 기자를 통해 직접 쓴 간증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2025 년 6 월에 방송된 조슈아 형제가 출연한 두 개의 유튜브 팟캐스트, God's Voice Daily 와 Centwinz 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간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그리스도 안의 자매의 간증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올 나팔절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증의 서면 진술을 자신에게 받아쓰게 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마란 아타!

제 이름은 조슈아 믈라켈라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살고 있지만 케이프타운 출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며, 오늘 그분께서 저를 세상에 전하라고 보내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도, 목사도, 감독도 아닙니다. 그저 거듭나 피로 씻김받은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신자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휴거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휴거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1982 년, 제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제 이름을 조슈아로 지으라는 꿈을 꾸셨습니다. 당시에는 태아의 성별을 판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합병증 때문에 의사는 부모님께 제가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을 때, 의사는 저를 기적의 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어머니는 저를 엎드려 안고 누워 계셨는데, 영적인 힘이 어머니를 옥죄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힘에 맞서 싸우던 어머니는 제가 엎드려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섰다면 저는 바닥에 쓰러져 다쳤을 것이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께 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 어머니는 저를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사라졌습니다.

네다섯 살쯤 되었을 때, 저는 가족을 아는 사람에게 한 달 정도 납치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한 인도인이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과 부모님이 와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곳의 현관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 말입니다.

16 살이나 17 살쯤 십 대였을 때, 저는 자살 충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자살하고 싶었고, 원수는 제게 그렇게 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살을 시도했지만, 막으려던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난 날부터 죽음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흔하지만,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51-52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아마도 그때부터 제 인생의 미래 소명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죽음을 보지 않도록 선택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제 원수이며,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모스 3 장 7 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000 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십 대 시절, 자살 충동과 싸우던 끝에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제 삶을 드린 것은 아마 열아홉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집에서 나와 거리로 나가는데, 우리 옆에 건물이나 주변에서 가장 높은 나무만큼 큰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칼을 들고 마치 우리를 지키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영적인 세계 중 하나였습니다. 가끔 교회를 오가며 걷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마치 그분이 제 옆에서 걷고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2003 년, 제가 다니던 바로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넓은 들판에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을 보니 불에 타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있는 땅만 불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불에 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의 분위기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밤, 이곳에 홀로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보였습니다. 별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파괴의 여파가 오기 전에 기독교 신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저를 다시 데려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7 년 후인 2010 년, 저는 28 세의 나이에 부목사직을 사임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 삶에 집중해도 될까요?"

그 다음 해, 다시 꿈속에서 저는 천국 법정에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법정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한 남자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남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법정 절차는 너무나 빨라서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 장 22 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을 받으러 법정에 오는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법정 안의 교회식 의자에 앉아 판사가 앉는 의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너무나 거대하셨습니다. 반투명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실물 크기의 인간 몸을 가진 예수님이 제 변호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자세히 기록한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수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를 고발하고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나오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법정에서 계단을 내려가 유치장으로 갔다가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이 천국 법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지만, 통과하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저는 천국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낮이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수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

그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방금 그곳 법정에 예수님을 남겨두고 온 참이었는데, 천국에서 다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환상이나 꿈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중동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목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수염에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분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바로 제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 없이 마음속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전차들이 나타나 제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도 전차를 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닦인 나무 토막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중 몇 개에만 개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는 크고 또렷하게 들렸

습니다. "네가 구원한 사람은 적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름 없는 수많은 나무 블록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나무 블록에 영혼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가 영혼 구원자가 되어 교회를 열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처럼, 저는 천국에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5 년 후인 2016 년에 저는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했지만, 매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인들에게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정교회 안에서 기도하러 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마당에서 한 노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제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저도 눈을 감고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손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눈을 떴는데, 그 노파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탁 트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 앞에 나타나 그녀 옆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발까지 내려오는 푸르스름하거나 남색의 위엄 있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은 너무나 강인해 보였습니다. 가슴을 보니 마치 우주의 은하수처럼 은하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주를 지탱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마주 보고 있는 동안,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미소가 이 교회를 닫은 것에 대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계획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노파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기도 후에는 아주 가벼워진 걸 아셨나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6 년, 또 다른 꿈이나 환상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똑같은 위엄 있는 옷을 입고 기둥이 있는 미국 대법원 건물을 닮은 건물 밖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게 "교회를 열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을 세상에 곧 오실 왕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2017 년, 꿈에서 저는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얹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왕좌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마치 세상에 전쟁이 다가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심각한 일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을 통해 저는 그분이 제게 크고 또렷하게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완전히 일어서기도 전에,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저를 순식간에 하늘에서 무해하게 뒤로 날려 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착지했습니다. 침대에 착지하는 순간, 저는 깨어나 울부짖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너무나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무슨 일이야?"라고 물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나온 답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한 남자를 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커서 늙은 기독교인이 되어 90 대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18 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해에도 꿈에서 신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큰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곧 할 말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요. 다시 말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26 년 월드컵은 없을 거예요. 남겨진 자들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깼어요. 저는 축구 팬이 아니어서 잠에서 깼을 때는 지난 월드컵이 언제 열렸는지, 다음 월드컵이 언제 열릴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26 년 남자 축구 월드컵 경기는 주로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

2018 년 말,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불을 켜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직접 마주 보고 있는데,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48 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룬 때부터 출애굽까지 77 년이 걸릴 것이다." 그분은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이 휴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2025 년 9 월 23 일과 24 일에 나는 내 교회를 데려가러 올 것이다. 이 이틀 동안에는 아무도 내가 언제, 언제 올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는 남은 자들을 위한 7 년 환난이 있을 것이다. 2032 년 9 월 15 일에 나는 왕으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분은 사라지셨고, 저는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저는 휴거, 재림, 그리고 환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 한 목사님이 장차 어떤 환난이 닥쳐올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휴거를 통해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매우 논쟁적인 주제라는 것은 알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55 장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하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생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넣어 주셔서 이 문제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열왕기하 2 장 1 절에서 11 절까지, 곧 엘리야의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을 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엘리사에게 "네 주인이 오늘 네게서 떠나갈 줄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말해 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휴거일이 그들에게 신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휴거에도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일곱 절기를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미 네 가지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만 남았습니다.

레위기 23 장은 나팔절이 하루 동안만 기념되는 절기로 제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초승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승달의 작은 초승달을 실제로 관찰하는 데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루가 이틀로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나팔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가 생겨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출애굽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휴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948 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7 년이 지난 지금, 바로 2025 년입니다.

그리고 2025 년에는 9 월 23 일과 24 일이 나팔절 이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짧은 기간에 교

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7 년 후인 2032 년 9 월 15 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월드컵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 장 5 절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평화와 안전이 임함을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바로 휴거 후 다가올 카리스마 넘치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약속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평화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6 년 6 월쯤이면 세계는 엄청난 혼란과 파괴에 휩싸여 FIFA 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 장 36 절에서 예수님은 휴거의 날과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 구절을 구글링해 보면, 이 표현이 실제로는 나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관용어라는 것을 설명하는 웹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원래 하루 동안만 지속되는 축제였으며, "초승달"을 실제로 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각적인 관찰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루 동안 지속되는 축제는 실제로 이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초승달의 날과 시간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팔절의 날과 시간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휴거의 날과 시간을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유대인 결혼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한 후에야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휴거는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 잔치와 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51-52 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나팔"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가 마지막 나팔이 환난 때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을 99 번 불고, 그 다음에는 100 번째 나팔을 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 절은 "형제들아, 그 때와 날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의 날"의 때와 날짜에 대해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날이 앞으로 2,000 년 동안 그들에게는 감춰진 사건이 되겠지만, 종말 교회에는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4 절에서 바울은 그 날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 장 25 절은 우리에게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은 아무 날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의 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 장 6-7 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 그분께 "이 때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는 그들의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은 2,000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말씀을 봉하고 책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다니엘에게 내린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임할 계시, 즉 마지막 때 그 자체에 대한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도록 정하신 때, 즉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거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2026 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 년 휴거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혼란과 파괴, 그리고 황폐함으로 가득 차 2026 년 6 월에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청하고 간청드립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때는 그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제 소명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곧 돌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여, 준비하십시오. 모든 죄를 뒤에 남겨두고 구원을 찾을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유일한 부르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 즉 일반 시민, 사업가, 유명인, 정부 장관, 전 세계 모든 대륙의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휴거의 시간이 다가왔으므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2019 년에 톰 혼이 (Tom Horn)한 TV 쇼에서 자신의 책 The Wormwood Prophecy『웜우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 쇼에서 NASA 직원으로부터 2029 년 13 일 금요일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혼은 그 소행성이 요한계시록 8 장에 언급된 불타는 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날짜가 7 년 환난 기간의 중간 지점이라면, 3 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5 년이 됩니다. 저는 그의 미래 예측이 옳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제 예측과 일치합니다.

저는 2018 년에 마지막으로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God's Voice Daily 국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기에 여기서 채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2 년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그분이 2,000 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서기 32 년에 2,000 년을 더하면 2032 년이 그리스도의 재림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7 년의 환난이 있을 테니, 2032 년에서 7 년을 빼면 바로 지금, 2025 년이 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이런 날짜를 정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들은 모두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휴거가 올해 9 월 23 일이나 24 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십억 퍼센트 확신합니다. 세상이 이 일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신이다.